

보험으로 쌓은 신뢰 대출로 이어가겠습니다



위와 같이 신뢰로 쌓은 신뢰 대출

내일을 지키는 힘

SAMSUNG

10
2001

月刊
통권 358호

통일의 지혜·통일문화 창조를 위한 월간지

北韓

2001년 10월 1일(매월 1회) 발행/2000년 12월 12일 국유철도특별급소화물 승인 제103호



특집 : 남북관계 중간점검

大中정부 대북정책의 성과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과 남북관계 전망
바람직한 남북민간교류의 방향과 과제

한반도

한반도 정세변화와
미·북 관계

◆ 이 달의 초집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과 한반도 안보

◇ 긴급진단
남북한 태권도의 정립과정과 교류 전망

정치범수용소는 6·25전쟁의 산물이었다

이천명 / 중국거주 탈북자

이 글의 주인공 이천명 씨(71)는 북한에서 8·15광복과 6·25를 겪은 사람으로 북한체제를 옹호하는 일선에서 일생을 바치다 식량난을 피해 중국으로 탈북했다. 그는 이 수기에서 자신이 해방 이후 북한 내무성(사회안전부) 중위로서 후방(北)에서 또다른 전쟁에 참가했던 생생한 기억을 증언하고 있다.(편집자 주)

해방자로 나타난 '소련군'

나는 1930년도에 咸鏡南道 永興郡 (지금의 金野郡)에서 출생했다. 나는 광복 전 煙臺 북도 淸津市 인곡동 철봉공장에서 '야장쟁이'로 일했다. 당시 일제는 조선에 대한 악랄 행위가 극심했다.

'공출'이라 하면서 집집마다 꼭

식을 감추었다 하여 집안 곳곳을 뒤져서 빼앗아갔다. 조선 사람은 밥을 먹지 말라고 하면서 조밥을 먹으라고 했다. 밥 먹는 시간이면 경찰들이 다니면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밥에 콩을 섞어 먹지 않으면 경찰서에 찾고 가서 뺨을 때리며 "시국에 맞지 않는 생활을 한다"고 떠들어댔다.

상점에는 가짜 상품을 내다놓고,

쌀을 개인이 팔다가 들기면 몰수하고 벌금을 안겼다. 게다가 '징용', '징병', '보국대'니 하면서 무고한 청·장년들을 일본 본토나 만주로 끌고가 전쟁 대포밥으로 노동력으로 부려먹었다. 일제에 대한 위험은 조선 각지에서 하늘과 땅에 사부쳤다.

하루는 일본 경찰들과 조선인 관리 몇 명이 부락에 나타나더니 사람들을 다 모아놓았다. 그들은 소련이 일본에 '선진 포고'를 하였으니 최후를 각오해야 한다며 모두 칼을 봄에 지니고 부딪치면 싸울 준비태세를 갖추었다. 그러나 백성들은 몸에 칼을 준비하기는커녕 무사태평이었다. 머칠이 지나자 일본 사람들은 2열 3열로 줄을 지어 늘어서서 저녁 9시경부터 淸津 시내를 벗어나 어디론가 가버렸다. 이를 후 소련 군대가 淸津 앞바다에 포 몇 발을 쏘더니 상륙했다.

주민들은 '조선독립 만세'를 부르며 소련 국기와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밟쳐나섰다. 노동자들은 일제가 가면서 무수고 간 공장을 복구하러 나갔고, 농민들은 자기 밭에 나가 어물이 가는 곡식을 가꾸었다.

고향을 이남에 두고 북한에 온

사람들은 광복이 되자 고향으로 갈 채비를 서둘렀다. 일제 식민지 하에서 같이 고통 당하며 살다가 이제 이별의 슬픔을 달래는 송별 연이 벌어졌고 눈물의 헤어짐이 온 강토를 훔쳤었다.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지으며 떠나는 사람들의 행렬은 시적과 끝이 보이지 않았다. 어른들은 마주 앉으면 "이제 이남에는 '미군'이 들어온다", "미국은 소련보다 발전되었다"고 하면서도 강토가 갈라질 줄은 누구도 예견 못했다. 다만 "소련은 공산주의다. 네 것 내 것 없이 공동으로 일하고 먹고 사는 나라다. 그러니 소련이 좋으나, 미국이 좋으나." 하는 이야기뿐이었다.

소련군대가 淸津市에 주둔하여 소련군 위수사령부를 설치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시작했다. 소련군 병사들은 거리와 골목마다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것은 다 집어갔다. 특히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이곳저곳에서 본격적으로 수색해 나갔다.

젊은 여성들 가차없이 잡아가

젊은 여성들은 가차없이 잡아가

고 가족들이 가로막거나 반박하면 구타하고 총으로 쏴 버렸다. 내가 살던 淸津市 인구동에서도 우리 마을의 옆집과 되는 김성옥과 스물두살이 돼 시집갈 날씨를 이를 앞둔 금숙이를 강제로 살고 갔다.

유금숙의 새 신랑될 사람과 부모들이 소련군 위수사령부를 찾아서 사연을 말하니 자기들은 모른다고 떡 잡아뗐다. 잃어버린 여자로 인해 통곡소리 높던 집안에 유금숙이 한 달 후 불쑥 나타났다. 울면서 말하는 유금숙이의 증언에 의해 사실이 밝혀졌다. 소련군은 淸津市에서 부령군 쪽으로 나가는 골짜기에 외딴집 몇 채가 있었는데 주인들은 모두 쫓아버리고 여기에 옮겨 명도 넘는 여자들을 가두어 놓았다. 소련군 열 명 가량이 이 집들을 호위하고 있었는데, 한 집에 여자들을 세 명씩 가두어 놓고는 소위 '위안소'로 이용하고 있었다.

성에 굶주린 소련군인들은 트럭에 무리로 타고 와서는 섹스를 하였다. 반항하면 때려눕히는지라 여자들은 모두 할 수 없이 순응하였다. 오전에 한 트럭, 오후에 한 트럭씩 근 한달 동안 수백 명

을 치르고 나니 여자들은 기진 헛대로 기진해버렸다. 유행이 새로 젊어 오 여자들이 많아서 '교대'를시키고는 집으로 가라고 쫓더라는 것이다.

같이 잡혀갔던 김상옥은 보름만에 견디다 못해 기절하여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한다. 너무나 심하게 강간당해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유금숙은 결혼식을 할 수 없었고, 침대에 누워 일어날 줄 모르는 폐인이 되었다.

소련 군인들의 만행

淸津市에 사는 고모뻘 되는 32세의 김상옥이라는 여인도 이 같은 봉변을 당했다. 내 고모는 조선 치마지고리를 상상 단정하게 입고 다니는 외모가 깨끗한 여성 이었다.

1945년 10월에 여섯 살 나는 딸 애를 데리고 집에 있는데, 마을을 수색하던 소련군 군인 2명이 들이닥쳤다.

나소곳이 고개 숙이고 앉아있는 어여쁜 여성을 보자 소련군 군인들은 신발을 신은 채로 온돌방 위에 올라서며 징그럽게 웃었다.

다짜고짜로 끌어안으려고 하는 군인들을 보고 고모와 딸애는 질겁하였다. 앞에서 우는 딸애의 귀っぱ를 후려쳐 옥음을 막추게 한 군인들은 달라붙어 반항하는 고모의 아래옷을 벗기고 깔고 앉았다.

이때 밖에 일하러 나갔던 고모부가 술을 마시려고 친구를 데리고 집에 들어섰다. 이 광경을 본 고모부는 들고 있던 술병으로 고모 위에 올라탄 소련 군인의 뒤 통수를 내리치고, 차차 고모 팔을 붙잡고 있는 다른 군인도 후려갈겼다. 두 군인이 쓰러지자 온 동네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어른들은 잘 했다고 말하면서도 빨리 도망치라고 권하였다.

고모 내외는 고향인 함경남도 영흥군으로 피해갔다가 6·25전쟁기간에 남한으로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까지 그들의 생사를 모른다.

이즈음 淸津 시민들은 식량이 없어 일제가 폐망 당시 5척의 배로 실어가려 하다가 소련군대가 들어오는 바람에 배를 폭파시켜, 바다 밑에 침몰된 배에서 썩은 쌀을 가져다가 먹으면서 살고 있었다.

그래도 광복이 되었다고 사람들은 떠들면서 공장과 주요 설비를 치웠다. 공장에는 자위대가 조직되어 경비를 섰고, 중요한 물자가 저장된 장소에는 자위대원들이 있었다.

주인들인 듯한 신살 되는 남자와 서른살 정도인 남자가 나와서 소련군인들에게 목재를 실어 가면 안된다고, 말이 잘 통하지 않으니 손짓과 몸짓을 했다. 그런데 소련군 대위는 다짜고짜 권총을 뽑아들더니 그 사람들을 보고 차세워둔 데로 걸으라고 호통을 쳤다. 권총 앞에 선 이들이 기가 질려 돌아서서 두세 발자국 걷는데 권총소리가 나면서 모두 고꾸라졌다.

소련군 대위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권총을 권총지갑에 찌르며 씩 웃었다. 나는 너무나 겁이나 틈을 보다가 냅다 도망쳐 버렸다.

내 부친도 거리에서 이런 봉변을 겪었다. 부친에게는 대를 물려오던 금이 섞인 회중시계가 있었는데 하루는 거리에서 소련군 병사와 부딪혔다. 부친의 길게 드리운 회중시계를 보자 소련군 병사는 부친을 염취 세우더니 그 시

계를 달라고 하였다. 소련 연해주 근방에서 육혈포를 차고 다니며 독립활동을 하던 부친은 러시아 어가 유창해 러사이어로 안된다 고 사정하였다. 하지만 마침 가내인 소련군 병사는 가습에 대고 따뜻한 물을 주는 위시봉을 하다니 공중에 대고 곧 두 빛을 갈겼다.

회중시계를 지키려다 목숨을 잃겠다고 생각한 부친은 할 수 없이 회중시계를 꺼내 주었다. 스위스 시계라고 설명해 주니 소련군 병사는 너무 좋아 공중에 대고 또 한 방 공포를 쏘며 시계 가진 것을 자축한다고 떠벌이고는 가버렸다 한다.

부친은 집에 돌아와 '해방자'라 자처하는 소련군에게 시계를 빼앗겼다고 통분해 하였다. 그러면 서 "광복이고 뭐고 대국에 아무 굴종해야 하는 약소민족의 습관은 언제 가시겠는가"고 부르짖었다. 소련군은 2차 세계대전에서 이긴 '전승국' 군대이고, 해방자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약소국가를 마구 강제로 강간하니 진정한 해방자는 아니었다.

독일이든 소련이든 자기의 이해 관계와 이익을 위해 세계 곳곳에서 약소국가들을 지배하여 유탕

을 채우려는 다 같은 승냥이 본성을 가진 나라들이라 볼 수밖에 없다.

나는 1948년 부친의 인수로 영아유치원에 가기 전에 있는 국립 내무성 보안간부학교에 들어가 1년 동안 공부와 후련을 반복되었다. 이 보안간부학교 교관 역시 '교문'이라는 명칭을 단 소련군 소좌였다. 그리니 일제의 혼란방식은 모두 소련군 식이었다. 경복되었다 하여 해방된 것이 아니라 다만 일제로부터 소련으로 북조선의 통수권이 넘어갔을 뿐이었다.

뜻밖에 일어난 6·25 전쟁

1949년 가을 南北 내무성 보안간부학교를 졸업한 나는 함경북도 내무부에서 내무원으로 그만하게 되었다. 당시 북한에는 지금처럼 보위부나 안전부가 따로 각각 있지 않고, 내무부 안에 안전과라는 것을 두고 이 부서가 지금의 보위부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나는 안전과에 배치되었는데 군사정호는 중위였다. 내무부 안전과는 淸津 시내의 민정부 움직임

이나 비조직체 적발은 물론 함경북도내 각 시·군 내무서들의 활동도 감독하게 되었다.

나는 주로 成鏡北道 穩城郡 내무서 안의 안전과 활동을 종합하여 道 내무부에 보고하고 사건이 제기되면 내려가 감독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이었다. 뜻밖에도 중앙방송은 새벽 5시 국방군이 38선을 넘어 북한으로 침공하고 있다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났음을 기습 선포하였다. 시민들은 "무슨 전쟁이야? 그러다가 말겠지."라고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이튿날도 계속 전쟁 보도가 나왔다. 북한 경비대가 38선 전 지역을 인민군에게 양도하고, 인민군이 전선을 넘어 남진한다는 소식이었다. 전쟁 3일만에 서울을 점령했다는 이상벽 방송원의 목소리는 우 북한에 울려퍼졌다.

그때 봉일은 눈앞에 왔다고 하며 시민들이 나와서 춤추던 일이 눈에 선하다. 그런데 7월에 접어들면서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미군 비행기들이 높게도 뜨고 낮게도 뜨면서 폭격과 기총 사격을 밤낮으로 해냈는데 순식간에 淸

津市는 불바다가 되었다.

주민들은 당황하였다. "서울이 해방되었다는 것은 거짓이다. 북방도시 淸津도 이렇게 얼어맞는데 이건다는 것이 무슨 소리냐" 하고 수군거렸다. 게다가 산 같은 배들이 淸津 앞바다에 떠서 淸津市에 대고 연신 함포사격을 하여 술한 주민들이 숨졌다. 집집마다 통곡소리, 한숨소리가 그칠 날이 없게 되었다. 淸津 제철소를 비롯한 북방도시 굴지의 기업소들이 폭격과 포격에 부서지고 검은 연기는 하늘을 검게 뒤덮어 버렸다. 시민들은 폐한 곳을 마련하느라 모두 방공호 굴 뚫기에 떨쳐 나섰다.

청·장년들은 55세까지도 군에 모두 징집 당하게 되어 노인들과 연약한 부녀자들만 후방에 남게 되었다. 그런데도 중앙방송에서는 "국방군이 계속 남으로 후퇴하며 술한 인적·물적·손실을 당하여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도 했다.

어쨌든 인민군대의 진격이 가는지 오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집들과 공장들은 뿌리째 날아가고, 농경지가 형체 없이 파괴되었는데 실로 황당한 일이었다. 전쟁이

일어나자 일주일 후부터는 북한 군 내무서의 모든 활동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전시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소위 '일시적 후퇴' 시기

각 시·군·구들의 인민군대 초모사업을 수행함이 1차적인 과업으로 제기되었다. 15세부터 17세 까지 신체검사도 없이 청·장년들을 무조건 뽑아 군대에 보내야 했다.

전쟁 초기 인민군의 서울 소식이 발표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기세충천한 남녀 청·장년들은 앞을 다투어 인민군 초보에 절기하였다. 그런데 淸津市가 비행기와 군함의 폭격과 함포세례를 받은 후부터는 '전쟁공포증'이 돌기 시작했다.

인민군 초보대상자 중에도 도망치거나, 다른 대로 숨어 들어가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내무서는 군에서 주관하는 군사 동원부와 협작하여 '군기피자'들을 찾아내기 위한 소동을 벌이게 되었다.

군기피자들은 잡히면 고스란히 군에 입대시켰지만, 잡히지 않으

면民間에 '군기피자'라는 깊은 글씨를 박아 넣어 문서고에 보관하였다.

제포시 반항하거나 도망치면 가차없이 총살해버렸다. 나도 술한 기피자들을 찾아다녔다. 소련제 '파발총'을 메고 밤이 됐도록 淸津市와 그 주변을 다녀보았으나, 난리 봉에 백에 한명도 찾아내기가 어려웠다.

갓 창설된 북한 내무서들은 경험 부족했고 전시에 하는 일들이 모두 생소하고 어려워 마치 낯도깨비가 설쳐대듯 마구잡이로 일을 처리했다.

몇 닦 후 그렇게 난숨에 먹어버린 것처럼 이남 지역에 들어갔던 인민군의 진격은 낙동강 지역에서 좌절되고, 미군이 상류하는 동에 북한군은 밀리기 시작했다. 이 책임을 물어 북한군 최용건은 해임되고, 제1부수상을 하던 김책이 자리에 들어앉아 전선을 지휘했지만 전황은 단라지기는 기ning 더 어려워졌다.

인민군은 이남 지역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둑 안에 들어 막대한 손해를 보며 咸興 이북 지역으로 쫓겨 갔다. 북한 역사에서 떠들어대는 '일시적 후퇴'가 시

작된 것이다.

1950년대 말 북한의 후퇴 시기는 간고하였다. 겨울 추위는 점점 심해져 눈보라가 기승을 부렸고 굶주림은 전역을 휩쓸었다. 노인·부녀자들과 전쟁고아들은 집이 없어 바깥에서 얼어 죽고 굶어 죽었다. 咸興 이북 지역으로는 더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예견했던 국방군이 함경북도 입구인 鏡城郡까지 밀고 들어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함경북도 내무서에서는 처단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게 되었다. 나는 도내무서의 파견으로 檀城郡 내무서로 내려가 안전 업무를 맡게 되었다. 檀城郡 내무서에는 구류장(감옥)에 정치범·경제범을 비롯한 죄수들이 2백명 가량 갇혀 있었다.

군 내무서장 이하 안전과 성원들이 죄수들의 처단 명단을 작성했는데, 성분 위주로 사건을 처리했다.

임세시기 시주·사본가·관료들이나 이들과 친척 관계에 있으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처단 명단에 넣었고, 죄수가 반항심을 가지고 있다 판단되면 또 처단 명단에 넣었다. 이렇게 작성하

니 2백명 중 1백40명 가량이 처단자 명단에 등록됐다. 1950년 10월 13일 밤 9시 30분경 군 내무서에서는 내무서원들을 총동원하여 檀城郡 풍인이라는 지방 골짜기로 처단 대상자들을 차에 실고 달렸다.

무자비한 살인극

이 처단 대상자 명단 속에 있던 사람들 중 아직까지 어렵잖하게 기억되는 이는 김동식(당시 45세·남양문화회관 과장), 전철호(당시 57세·남양중학교 교원), 김종만(당시 29세·온성역 조차공) 같은 사람들이다. 내무서원들은 죄수들을 모두 차에서 끌어내린 후 골짜기에 일렬로 세워놓았다. 그런 다음 미리 대기하고 있던 50여 명의 내무원들이, 파발총을 쳐들이 전부 살해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 혹시 죽지 않았는가 하여 시체를 뒤져보고 미심쩍으면 또 총질을 해대자 순식간에 풍인 골짜기는 피비린내가 짜개 되었다.

다음날 내무서원들은 아침 일찍 삽과 곡괭이를 가지고 가서 시체들을 전부 묻어버렸다. 또한 면과



리에 머물고 있는 체단자 병단을 보 착상한 뒤 그들을 세우하기 시작했다. 이 대상자 병단은 미리 '감시 사건 등록자'로 낙인찍힌 이들이었는데 주로 일제 때 지주·자본가·관료들과 그 자식들로 북한공산사회에 반감을 품고 있다고 감시해 오닌 '불만분자'들이었다.

나는 내무원들과 함께 화물자동차에 앉아 이 체포작전에 동원되었다. 이날 오후 우리가 체포한 사람은 대상자 12명 중 9명이었다.

내가 속한 7명의 내무서원 조는 풍인으로 가는 도중에 해군 피복 공장 뒷산의 구덩이를 파놓은 장소로 이들을 끌고 갔다. 차에서 내려 세우니 총살하려 한다는 기미를 알아챈 이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도망쳤다. 그러나 행한 들판이어서 피할 데가 없는 이들은 모두 총에 맞아 학살되었다.

우리는 이들의 시체를 절절 끌어다가 구덩이 속에 넣은 후 십으로 대강 문어미렸다. 이 날 온성군 내무서는 나섯 대의 화물자동차에 5개조로 나뉘어 체단 행동을 일제히 취하였는데 대상자 68명 중 55명을 체포하여 학살하였다.

이런 살인 만행은 북조선 진지에서 일제히 벌어졌다고 내무서장이 내무원들 앞에서 토로하였다.

이날 저녁 군 내무서장을 우리 채단사업은 성공적이었다고 칭찬하며 술 한 잔 마시자고 하여 내무서 안에서 술반놀음을 벌였다. 1960년 10월 13~15일까지 북한 함경도 지역 내에서 펼쳐진 내 나는 살인 만행을 벌인 것은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서북청년단' 적발 사건

내가 파견되어 근무하던 檀城郡 옆에는 鐘城郡이 있었다. 이 종성군 하삼봉리라는 곳에 고급중학교가 있었는데, 난데없는 사건통보가 내무서에 전달되어 왔다. 17~22세까지의 고급중학교 학생들이 '서북 청년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움직인다는 정보였다.

이 '서북 청년단'은 미국과 국방군이 돌아오면 벙어리 환양사업과 내무원·군인들을 대상으로 무기를 달취하여 결정적인 시기에 무장봉기를 일으켜 노동당 간부들을 처단하고 자유세계를 만들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했다. '서북

청년단'의 조직규모는 27명이며 이 조직의 주모자는 학교학생이 아닌 상이 '서'씨란 인물인데 이름은 딱히 기이거나지 않는다.

이 조직은 내적으로 이미 태극기를 많이 제작했으며 빠라를 수 없이 제조하여 유사시에 살포하려 준비를 끝냈다는 것이다. 규모가 작은 군이어서 온성군 내무서 내무원들보다 인원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 종성군 내무서에서는 온성군 내무서에 긴급 지원을 요청해 왔다.

온성군 내무성에서는 20명의 내무원들이 트럭 2대에 나누어 타고 '서북 청년단' 체포 작전에 참가하게 되었다. 나도 물론 이 작전에 동원되게 되었다. 그러나 종성군 내무서는 국방군이 곧 들이 닥칠 것 같아 사건 경위나 내용도 알아보지 않고 통보만을 근거로 체단작전을 펼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는 종성군 내무서원들과 체포조를 구성한 후 트럭 6대에 분승하여 오후 5시경 잇따라 지녁을 먹고 출발하였다. 내무서원들은 총동원 인원이 60명 정도였는데 그들은 우선 하삼봉리 7백호 가량 되는 마을을 길목마다 차단해

버렸다.

그 다음 각기 자기가 맡은 대상에 따라 체포작전을 벌였다. 체포작전으로 하삼봉리 마을은 순식간에 뒤집힌 듯 일제히 소동이 일어났다.

서북청년단의 주모자 서씨라는 사람은 권총을 가지고 있어 내무서원들이 그의 집으로 가서 찾으니 총질을 하였다. 접전 끝에 내무서원 한명이 그의 총에 맞아 즉사하고 서씨도 내무서원들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두었다.

서북청년단 학생들 속에는 여학생도 6명 들어 있었는데 몽땅 체포되었다. 학생복을 단정히 입은 어린 학생들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은 괴로웠다. 남학생들은 자동차까지 호송해 와서는 총으로 뒤통수나 척추를 쳐서 쓰러뜨린 다음 두 팔을 뒤로 비틀어 묶어서 차에 실었다.

학생들의 부모들은 자식들을 데려가지 못한다고 막아 나섰다가 내무원들의 구둣발에 봉변을 당했다. 이를 부모들은 자식들이 내무서로 끌려간다고 생각만 할 뿐 학살된다는 끔찍한 내막은 모르고 있었다.

체포소동은 저녁 10시경이 되어

서야 완전히 끝났다. 학생들의 인원을 점검해보니, 24명으로 3명이 비었지만 그들은 찾아내지 못했다. 이들을 트럭에싣고 가던 노중 이운식이라는 21세년 학생이 자동차에서 뛰어내려 도주하였다. 칠혹 같은 밤이어서 추격을 못하고 우리는 열댓 발의 총질을 하였다.

트럭은 종성군 동포리라는 곳에 가서 멈추었다. 동포리는 두반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국경을 이룬 지역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내무서원들이 이미 전에 파놓은 구덩이와 30미터쯤 떨어진 곳에 학생들을 내려놓고 트럭의 전조등 불빛을 학생들에게 들이댔다. 깨끗한 학생복을 차려입고 나란히 선 씨씩하고 젊음이 넘치는 학생들의 천진한 모습과 옆에 서 있는 6여명 여학생들의 아리마운 모습은 너무도 안스러워 제발 죽이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졌다.

'쏴' 하는 종성군 내무서장의 구령소리와 함께 20여 명 내무원들의 기관총에서 불줄기가 뿜어나갔다. 비명소리와 총소리가 한데 어울려 돌아가는 살인 마당에서 머리채를 훌날리며 기우뚱거리다

가 쓰러지는 여학생들의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이런 배상질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 수아한 마리길이 생각되었다. 손은 후들 후들 떨려 담뱃불도 제대로 붙일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는 학생들을 끌어다가 구덩이에 처넣고 대충 매장해 버렸다. 어떻게 군 내무 서까지 트럭을 타고 왔는지 기억이 전혀 없다. 내무서로 돌아오자 내무서에서는 술판이 펼쳐졌다. 나는 이 날 스물한 살 나이가 된 후 처음으로 술을 잔뜩 마셨다. 나 같은 나이 또래 학생들에게 죽음을 준 것이 내가 사랑하고 싶은 아름다운 여학생들을 죽인 것은 현실이 아니라 악몽인 듯 싶었다.

대를 이은 비극

그때 서북청년단 학생들 속에는 일찍이 장가를 가 딸을 하나 남긴 학생도 있었다. 그 학생의 딸은 그 뒤 함경북도 鏡興郡 기관차구 객차대 차장으로 일했는데, 아버지가 전쟁시기 서북청년단에 기당했다 치단되었다는 이유로 스물여덟 살이 되도록 시집갈 대상자가 없어 시집을 못 기고 있

었다.

인물도 환한 그 처녀는 아버지 때문에 사회에서 버림받는 것이 분하여 1978년 중국으로 탈북하려다 붙잡혔다. 그 처녀는 화령시 철도 종업원 수백 명이 모인 앞에서 공개재판에 나서게 되었다.

함경북도 보위부는 그 처녀에게 '자기 죄과'를 강제적으로 발표하게 한 다음 끌고 갔는데, 아마 清津市 수성 정치범수용소 아니면 종성군 정치범수용소에 넣어 버렸을 것이다. 훗날 한반도가 통일되면, 한국은 6·25전쟁시기 쓰러진 서북청년단의 어린 청춘들의 열사기념비를 함경북도 종성군 동포리에 크게 세워, 반드시 이들을 추모하고 한을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서북청년단 사건과 비슷한 사건은 1950년 11월 말 함경북도 鏡興郡(지금의 恩德郡)에서도 벌어졌다. 경흥군에 살던 16명은 '대한독립단'을 조직하여 한국장송을 들으며, 태극기를 만들어 미군과 국방군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이들은 대부분 일제 때 지주, 자본가, 관료들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었다. 이 사실을 알아낸 경흥군 내무서에서는 이를 모두를 체

포하여 경흥군 오봉리에 있는 폐광으로 끌고 갔다.

깊이가 40미터 남짓한 곳에 이들을 모두 몽둥이로 때려 질식시켜 처넣은 내무서원들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사실을 비밀에 부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1987년 탄광을 개발하다가 굴을 뚫는 굴진공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는 사람 뼈다귀를 발견하면서 사건이 밝혀졌다.

통보받은 군 안전부에서 나와 사건현장을 조사해보니 6·25전쟁 때 자기들이 한 짓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애써 굴을 뚫은 이 소형 탄광 개발을 중지시켰다. 이 같은 크고 작은 사건은 6·25전쟁 시기 함경북도 내에만도 수없이 많이 일어났다. 무리로 살인하는 학살만행이 벌어졌으니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친다.

'치안대장' 하던 사람 일행과 휴전

북한군의 일시적 후퇴가 끝나자, 전선은 38도선 부근에 고착되었다. 북한군은 진지 방어전에 매달려 가는 곳마다 간도를 부설해 더는 38선 이북을 내주지 않으려

최후 발악을 하였다. 이 시기 북한 내무서의 기본임무는 악지지 후퇴시기에 남한에 복부한 '자인내' 연루자들과 폐산병들을 죽성하는 것이었다. 1951년 4월 5일 경 오후에 함경북도 내무부에 사건이 전달되어 있다.

신고는 한 주민이 전해 온 것인데 후퇴시기 咸興 지구에서 '치안대장'을 하던 사나이와 정체 모를 남자 몇 명이 淸津市 앞바다에 있는 항구에서 어물쩡거리 것을 발견하였다는 것이다. 틀림없이 수산사업소의 어선들을 가로채 월남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수산사업소 책임자들에게 알아보니 도난당한 배는 한 척도 없다는 것이었다.

즉시 우리 안전부과 상원 8명은 트럭을 타고 수산사업소에 도착하였다. 때는 이미 낮이 어두워질 때였다.

"저녁 저녁" 하는 빛자국소리가 들려오더니 검은 그림자들이 부두에 다가섰다. 5명의 사나이들은 사방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발동선을 단 자그마한 어선에 앞에 멈춰서는 것이었다.

순간 우리 내무서원들은 "서라, 쏜다"하는 위협소리를 지르며 권

총과 기관총을 겨누고 벌써 일어섰다. 우리와 그들의 거리는 15미터쯤 되었다.

불빛의 봉변에 얼어 다쳤던 사나이들은 저항하지 않는 것 같더니, 무슨 나지막한 구령소리와 함께 모두 그 자리에 남자 앞드렸다. "땅, 땅" 하는 권총소리가 연이어 터졌다. 서로 총격전이 시작되었다.

나의 옆에서 기관총을 휘두르던 내무서원 한 명이 앞으로 푹 꼬꾸라지는 것이 보였다. 내가 권총을 들고 사나이들이 앞드려 있는 쪽에 연속 발사를 하는데 갑자기 오른쪽 어깨가 쇠몽둥이에 맞아 맞는 듯한 감이 들더니 나도 어느새 고꾸라지고 말았다.

나의 상상을 염두에 생각나지 않았다. 병원으로 후송된 침상에서 들으니 우리 쪽은 내무서원이 한명 죽고 내가 무상당했더라는 것이었다. 체포하려 했던 그 사나이들은 5명 중 2명이 총에 맞아 사살되고, 3명은 노방을 친다고 했다. 이렇게 되어 나는 전쟁이 일어난 지 1년도 안되어 어깨에 관통상을 입고 함경북도 주을 군에 있는 전상자병원에 후송되었다.

오른쪽 어깨뼈가 부스러져 오른쪽 팔을 거의 움직일 수 없게 된 나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2년 동안 계속 전상자병원에 입원하여 휴전을 맞게 되었다. 전상자병원 침상에서 나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았다.

그때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했는데 나행이란 생각도 했다. 하지만 피비린내 나는 학살만행에 참가했던 생각이 떠올라 나 같은 건 죽어도 응당하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죄의식은 항상 나를 지배했고 일생을 괴롭혔다.

전쟁이 끝난 1953년 6월에 나는 요행히 오른팔을 쓸 수 있게 되어 함경북도 淸津지구 철도 내무서에 재배치 받아 근무하게 되었다.

6·25전쟁은 역사상 유례없는 인적, 물적 자원을 손실시켰다. 전쟁을 끝내고 보니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백성들은 무리로 죽고 집도 흔적 없이 사라져 어디에서 살란 말이냐?", "공장도 농촌도 다 파괴되어 무엇을 하겠느냐? 부모 형제 다 잃고 어떻게 살겠느냐?" 등등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부모 잃은 고아들은 떠돌아다니

며 방랑의 길에 올랐고, 부모처자가 살았다 하여도 기관차도 객차도 다 파괴된 상태에서 찾아갈 길도 막혔다.

자식들을 공부시키려 해도 학교는 다 무너지고 병원도 다 파괴되었다. 전쟁은 과연 누구를 위해 일어났기에 이런 죽음과 고통을 백성들이 다 안게 되었는지……. 전쟁에서 이긴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새 물건이 산처럼 쌓이겠는가?

전쟁은 술주정뱅이가 술 취해 자기 집안 물건을 마구 두드려 엎는 망둥이 같은 짓만 하게 만들어 놓았다. 북한은 6·25전쟁을 승리한 전쟁이라고 하는데 속여도 분수가 있다. 전쟁은 정전으로 끝났지, 항복받은 것도 아니었으며 38도선이 제주도 끝의 일본 쪽에 가 붙은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이라는 것을 平壤 한복판에 덩실하게 얹혀놓고 망신스럽게 동족끼리 싸움하던 자랑을 한다.

전쟁은 명실공히 공산독재를 남한까지 퍼보려는 북한 독재자들의 정치적 야심의 산물이었고 백성들을 내몰아 자기의 정권 유지

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술책이었다. 북한 내무성은 전쟁이 끝나자 계획 그 이름을 북한 사회안전성이라고 탈바꿈시켰다. 하여 내가 근무하게 된 淸津 철도 내무서도 淸津지구 철도안전부로 명명되었다.

전후 주민탄압 시작, 감옥이 넘쳤다

북한 주민들이 전쟁 3년간 겪은 고생이 새 가라앉기도 전에, 金日成은 주민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전쟁으로 단련됐다는 군인들로 사회안전성은 당국의 지시에 따라 전쟁시기 주민들의 생활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전쟁시기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였느냐, 증인을 세워라. 월남한 남편의 행처를 아느냐, 친척이 ‘치안대’ 징집을 하며 사람을 어떻게 죽였느냐, 전쟁시기 자기가 한 일에 대해 모두 안전부에 자수하라”고 포고령을 연신 내렸다.

사회안전성 감옥은 배로 불어났으나 잡아들인 주민들로 차고 넘쳐 수용자들을 다 수감할 형편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새로 당국이 착상한 것이 오늘의 ‘정치범수용

소’의 전신인 ‘주민수용소’였다. 각 도에 몇 개씩 넓은 부락 하나를 통째로 내고 그 안에 북한당국이 구별해낸 북한주민들이 갇히게 되었다. 때리고 심문하고, 확인하고, 심판하고, 총살하는 놀음이 전쟁이 끝난 후 2~3년여 간에 멈출 줄 몰랐다.

6·25전쟁은 끝나고 또 다른 심문전쟁, 차형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주민들은 집·공장·일터를 잃은 것도 괴로운데 더 괴로운 당국의 박제와 폭압이 뒤따른 것이다. 마구 쏘고, 불잡고, 도망치고, 강요하는 ‘전쟁’의 난리 속에 주민들이 살아 온 경력과 행동은 가지각색일 수밖에 없었다.

전쟁기간 중의 이 가지각색의 사회경력과 움직임이 현재 북한이 독재를 펴나가는 데 사람 가림을 하는 ‘성분관계’라는 것을 정해놓게 되었다. 이 성분 관계에 따라 북한주민들은 6·25전쟁이 끝난 뒤 오늘의 현재까지도 차별대우와 버림을 받으며 인간 최하층의 고통 속에 살게 되었다. [20]

月刊 北韓

統一의 智慧 · 統一文化의 創造

북한학회 회원모집 안내

북한학회는 북한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북한연구에 ‘學’의 개념을 부여하고, 심도있는 북한문제의 조사·연구발표를 통하여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과 학습정보를 교류하기 위하여 1984년도에 북한연구소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회원은 25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북한학에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북한학회 회원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학회 회원이 되시면,

- ◆ 북한연구소가 발행하는 월간 <북한>지와 연 1~2회 발행하는 학술논문집 <북한학보>를 기증하여 드립니다.
- ◆ 국내외 학술회의 및 북한연구포럼, 학술간담회 등에 초청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북한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한 및 공산권자료(특수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학회 회원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2248-2396 FAX : (02)2249-9571

社團法人 北韓研究所

附 設 北韓學會 會長 梁好民